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소식지

교육목적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보건 의료분야의 탁월한 여성 지도자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통해 길러주고자 하는 성취능력을 교육목표로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의사에게 필수적인 의학 지식과 술기,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에 바탕을 둔 기본적인 진료 능력을 확립한다.
- 둘째,** 건전한 윤리관, 사회적 책무성, 여성 리더십과 능동적인 자기개발능력을 함께 갖춘 의학 전문직업성을 확립한다.
- 셋째,** 비판적 탐구 자세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 넷째,** 이웃과 국가, 나아가 인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함양한다.



02 대학소식

- 제24대 이지희(생리학) 신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 취임
- 130주년 보구여관 기념식

03 기획기사

- 의과대학 교육인프라 구축기금
- 의과대학 새 캠퍼스 건축 현황

04 동문소식

- 후배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 김태임 선배님을 만나다 (김태임 선배님 인터뷰)
- 대한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 취임(김명환 동문)

05 학생소식

- 의과대학 연합동아리 K.M.S.C
- 운동동아리 화검랑
- Medical Summer School 2017 Rostock에 다녀와서
- Graz의대 교환학생 환영식사
- 태국 마히돌의대 교환학생 환영식사

06 교수소식

- 교원인사발령
- 교수 수상 및 업적

07 동창소식

- 봄 걷기대회
- 제8회 골프대회

08 행사알림

- 이화행림제
- 제10회 영덕터스포럼
- 가을문화유적답사
- 송년회 및 학술심포지엄

대학소식

제24대 이지희(생리학) 신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 취임



“이화여대 의과대학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 역사는 188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인 보구여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보구여관은 고종황제가 ‘널리 여성을 보호하고 구하리’는 의미에서 하사한 이름으로, 당시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여성들에게 근대 의과학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945년 의과대학을 개교하면서 의학 교육에 더욱 매진하였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의학 교육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탁월한 여성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기초-임상 통합 교육 과정, 조기 임상 노출, 임상 술기 강화 등 우수하고 선진화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과 윤리교육을 통해 의사로서의 기본 소양을 가르치며, 의과학자 육성 프로그램과 같은 특성화된 진로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급변하는 연구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기초-임상 융합의학 연구,

국제 공동 연구 활성화 등을 통해 의학 발전과 의료 수준의 질적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에 우리 의과대학은 교육의 질과 연구역량을 평가하는 의학교육인증평가에서 최고 수준인 6년 인증을 획득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역량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기초의과학 선도연구센터(MRC) ‘조직손상방어연구센터’, 보건복지부 지정 ‘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 보건복지부 주관 ‘줄기세포·재생의료 실용화’ 사업부분 선정, 환경부 주관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국가사업 지원센터 선정, 아울러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등이 개소됨에 따라 우리 의과대학은 그동안 의과학 및 융복합 중개 연구를 선도하며 국민 보건 의료 증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은 2019년 강서구 마곡지구에 최첨단 교육/연구 시스템이 구축된 캠퍼스를 새로이 설립하여, 같은 자리에 개원할 이화서울병원과 함께 우리나라 의학을 선도하고 동북아 국제의료 허브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의학 공부에 매진하는 학생들, 열정과 긍지로 교육과 연구에 힘쓰는 교수들, 이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교직원들 모두의 꿈이 실현되고 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구여관 13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한국 최초의 여성전문 병원 보구여관이 130주년을 맞아 2017년 5월 26일, 이화여자대학교 ECC 이삼봉홀에서 기념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주최한 이 행사는 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여러 귀빈들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학술 심포지엄은 유경하 목동병원장의 보구여관의 역사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로 시작되었다. 보구여관의 오랜 역사와 함께 이화여자대학교의 새로운 병원에 대한 내용까지 포괄한 연설은 이화여대 병원의 의의를 되새길 수 있게 해주었다. 이어진 1부의 주제는 ‘사회 속의 이화의학’이었다. 이화여대 사회학과 김정선 교수의 ‘한국 사회와 여성건강’으로 시작되었는데, 의학분야를 사회학의 관점과 연결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다음으로 이화여대 의학과 박미혜 교수의 ‘이화의학의 사회적 기여’를 주제로 한 연설이 이어졌다. 이화 의학 교육의 역사와 함께 여성리더 양성을 통한 사회적 기여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한 연설은, 특히 학생들에게 의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2부의 주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이화의학’으로,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소아재활학과 김혜경 교수의 ‘뇌성마비-근거기반 진료’, 이화여대 의학과 하은희 교수의 ‘한국 출생코호트 연구의 미래와 전망’, 미국 에모리대학교 소아신경과 김현미 교수의 ‘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소아 뇌전증 연구’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이 미래 의료 전망과 새로운 연구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3부는 ‘이화의학 세계를 품다’라는 테마로 진행되었는데, 이화여대 국제학과 김은미 교수의 ‘보구여관에서 개발도상국 소년건강까지’, 이화여대 의학과 신상진 교수의 ‘세계 속의 보구여관’이라는 제목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또한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의 박지향, 전소현 학생이 ‘통일한국에서 이화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만찬과 동아리 공연을 끝으로 학술 심포지엄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보구여관 13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은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고 구한다는 이념으로 설립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전신인 보구여관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새기는 의미 깊은 만남의 장이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될 대학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해본다.



〈의예과 1학년 방윤지, 최은영 기자〉

의과대학 교육인프라 구축기금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2018년 완공되는 강서구 마곡지구의 의과대학 새 캠퍼스를 통해서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새 캠퍼스에는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

육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보건의료 분야의 탁월한 여성 지도자 양성”이라는 의과대학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최고 수준의 의학 교육 인프라가 구축될 것입니다. 세계 의학교육을 선도하게 될 최첨단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은 ‘의과대학 새 캠퍼스 교육인프라 기금’ 신설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제 22-23대 학장을 역임한 김경호 전 학장은 2014년 8월 취임 이후 의과대학 발전을 위한 모금에 박차를 가해 2017년 7월 말까지 19억 9천여만원의 의과대학 발전기금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새 캠퍼스에 ‘의과대학 새 캠퍼스 교육인프라 기금’을 신설하고 제 1호 기부자로 박혜숙 교무부학과장과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의과대

학 새 캠퍼스에는 강의 녹화가 가능한 최첨단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생방향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OSCE/CPX룸, 문제 기반 학습 지원을 위한 소규모 세미나실,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춘 개별 태블릿 기반 실습 및 평가 지원 설비, 화상 교육 및 해외 교류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실, 최첨단의 의학도서관 및 최신식 의과대학 전용 기숙사를 포함한 최고 수준의 교육 및 연구 시설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과대학은 세계 여성의학의 선도하는 세계적인 명문 의과대학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여성 인재 양성과 21세기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명문 의과대학으로의 도약이라는 의과대학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의과대학 새 캠퍼스 교육인프라 기금’ 및 ‘의과대학 발전기금’ 모금에 졸업생, 교수님, 그리고 학부모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 후원 신청서

의과대학 새 캠퍼스 건축 현황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은 강서구 마곡지구에 새 캠퍼스로 2019년 이전합니다. 새 캠퍼스에는 지하5층부터 지상12층까지 약 1만평의 교육연구시설과 1,130평의 기숙사가 함께 들어섭니다. 2015년 8월 착공해 2018년 8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2019년 2월초까지 기반시설이 모두 이전될 계획입니다. 새 캠퍼스에는 최첨단 연구기반 시스템과 함께 최첨단 교육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 ✓ 학습 유형 맞춤형 최첨단 강의실 구축
- ✓ 임상 술기 강화를 위한 미래형 임상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
- ✓ 생방향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OSCE/CPX룸
- ✓ 문제반향 학습(PBL) 지원을 위한 소규모 세미나실
- ✓ 해외 우수 대학(기관)과의 화상 교육 및 교류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실
- ✓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춘 개별 태블릿 기반 각종 실습 및 학습솔루션 제공 등

또한 “이화의학의 학습 및 생활 공동체 실현을 위한 보금자리”로 의과대학생 전용 기숙사(약 200명 수용)와 “이화의료인을 위한 교육, 학습, 연구, 지적 교류를 위한 글로벌 지식 허브”로서의 의학도서관도 새롭게 갖추어질 것입니다. 보구여관 130주년의 역사를 가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은 강서구 마곡지구의 의과대학과, 마곡에 위치하는 이대서울병원, 목동

이대병원과 함께 세계여성의학의 선도하는 의학교육기관으로 비상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과대학 새 캠퍼스 층별 계획



동문소식

후배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 김태임 선배님을 만나다 이화여대 의과대학 김태임 선배님 (23회 졸업) 인터뷰



햇살이 쏟아지는 7월의 맑은 날 학생기자 박조은(의전원 2학년)과 최은영(의예과 1학년)은 김태임 선배님을 만나기 위해 중구에 위치한 동호 의원을 방문하였다. 동호 의원의 김태임 선배님 (23회 졸업)은 1974년도에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美 피츠버그대학 알리게니 종합병원 내과 레지던트, 알리게니 종합병원 자문의원, 포모나 메디칼 클리닉 원장 등을 거쳐셨고 이화여대동창회 회장 및 부회장, 총무이사를 역임 또한 현재 장학위원장을 맡고 계시다. 이처럼 후배양성을 위해 힘쓰고 계신 선배님의 노력들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들어볼 수 있었다.

Q 동창회장직을 역임하시면서 여러 활동들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몇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제가 진행한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세 가지를 꼽아보자면 △ ‘동호회 모임’ △ ‘영 닥터스 포럼’ △ ‘백분의 일 장학금’이 있습니다. 동호회 모임은 좋은 의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졸업한 동기, 혹은 선후배들이 있는 모임에 나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여러 분야에서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따로 시간을 내어 만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동호회모임을 통해 같은 취미를 가진 회원들끼리 뭉칠 수 있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서 이화여대동창회 모임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 닥터스 포럼’은 동창회의 젊은 회원들의 저조한 참여가 문제라는 점에서 처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일단 젊은 동문끼리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시작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매년 이어져 오고 있어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백분의 일 장학금’이 있는데, 이 역시 여러 동창생들의 관심에 힘입어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이 정도 규모로 커질 수 있을지 몰랐는데, 지금 다음 계속 지속해오고 있을 정도로 이어져 오고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이 많은 선배들이 뒤에서 힘써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훗날 사회에 나와서 다시 한 번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베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 여러 활동들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백분의 일 장학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A 사회적으로 경제위기 속에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학생들은 특히 더 많은 압박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의과대학, 의전원 학생들이 미래의 의사로서 더 큰 꿈을 꾸기 위해서는 선배들의 힘이 중요하다 생각되어 ‘백분의 일 장학금’ 모금 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시작은 작은 생각에서 비롯되었지만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성장해 온 점이 제 마음을 벅차게 합니다. 이 모든 건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새로 합류해 주신 선생님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배려하면서 동시에 의료인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한 “백분의 일”나눔 장학금 모금 운동은 현재까지 232명이 참여 851,000,000을 모금했고, 작년에만 131,710,000을 모금했습니다. ‘백분의 일 장학금’은 올해에도 많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모두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성과를 보여준 ‘백분의 일 장학금’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 위해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간 뒤에도 후배를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백분의 일 장학금’은 동창회의 자부심이고, 모교를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계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Q 동창회에서의 여러 활동 외에도 글을 통해 의료인으로서의 생각도 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쓰신 글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A 어렸을 때 인문학이나 철학을 공부해보고 싶던 소망이 2012년 첫 수필작품인 ‘사라예보의 봄’을 통해 꽃피운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뜻을 함께하는 네 명의 동창 선생님들과 함께 진료실 안의 풍경이 담길 수 필집을 내어 글쓰기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개원 의사로서 정신없이 바쁘게 달려오는 와중에 틈틈이 써 내려간 글들이 모였는데, 이 글쓰기 활동을 통해 환자를 더 잘 이해하고 믿음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하고자 하는 제 바람이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 ‘열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선 ‘열정’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넘치는 열정이 있어도 끈기가 없으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1974년도에 졸업하고 미국에서 전문의 과정을 수련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학업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끈기를 가지고 있었기에 긴 수련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후배님들도 의사가 되고, 되고 나서도 끊임없는 시련을 겪을 수 있는데, 이때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내 멋진 의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의과대학과 관련 된 여러 활동들을 해 오신 김태임 선배님께서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랜 기간 사랑으로 후배들을 위해 헌신하신 모습은 누구라도 본받을 만했다. 이 인터뷰를 통해 선배님의 따뜻한 마음이 더 전해지길 바란다.



〈의예과 1학년 최은영, 의전원 2학년 박조은 기자〉

동문인터뷰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E-mail: medi ewha@ewha.ac.kr

김명한 동문, 대한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 취임



지난달 10일 취임한 김명한(36회 졸업)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은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헌혈자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본부를 운영할 것”이라며 “수혈자에게는 필요한 혈액제제를 잘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우리나라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전국 수혈용혈액제제의 93%와 의약품 원료용 혈장을 생산공급하는 전국의 15개 혈액원, 3개 혈액검사센터, 혈장분획센터와 혈액수혈연구원의 20개 기관을 총괄하는 본부이다. 안전한 수혈로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본부는 광범위하게 관련분야와 협의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명한 동문은 서울출신으로 창덕여고와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 의과대학원에서 임상병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혈액관리본부 혈액안전국장, 중부혈액검사센터장, 남부혈액원장 등을 역임했다.

학생소식

동아리 탐방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연합동아리 K.M.S.C



KMSC(Korean Medical Student Club)는 1954년부터 이어져, 올해 60주년을 맞이한 긴 역사를 가진 연합동아리이다. 다가오는 9월 16일 건국대학교 동문회관에서 KMSC 창립60주년 기념회가 있을 예정이다. 현재는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의학과, 중앙대학교 의학과 세 학교가 속해 매년 하계 의료봉사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정기 의료봉사로는 영등포에 위치한 오섭의원과 노원구에 위치한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을 매달 1~2회 찾아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뿐 아니라, 노숙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혜택으로부터 소외된 환자들을 위하여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하계 의료봉사는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수일간 의료기관으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방문한다. 진료 봉사를 진행하는데 올해도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가평에 위치한 별바라기 마을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무더운 여름에 고군분투하면서 식사까지 직접 마련하며 의료봉사를 잘 마무리 한 동아리 구성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봉사활동 외에도 친목을 다지는 신년회, 졸업생 환송회, 망년회 등 여러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바쁜 와중에도 모임마다 졸업한 선배님들이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는 것 또한 동아리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0년간 꾸준히 동아리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 원동력은 동아리원 간의 끈끈함이라고 생각된다.

다. 봉사 활동 준비 기간 동안 생기는 의견 충돌이나,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소속감이 형성된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봉사라는 하나의 교집합에서 만난다는 사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게 아닐까? 이런 소속감은 결과적으로 선배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져 갔다. 앞으로도 더 보람차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이어나갈 KMSC의 행보가 기대된다.

〈의전원 2학년 박조은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운동동아리 화검랑



화검랑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최초 운동 동아리로, 2005년 5월 10일 창단되었으며, 김광호 지도교수와 최영국 사범의 지도아래 운영되고 있는 유서 깊은 검도 동아리로 2017년 현재 15기를 새로 맞이하게 되었다. 화검랑은 4월 신입생 환영회 이후, 매달 1~2번의 정기적인 훈련을 거치며, 7월에는 8~10일에 2박 3일간의 합숙훈련을 통해 검도를 집중적으로 연습하여 부원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다지고 실력을 향상시킨다. 특히 화검랑은 훈련에 선배가 직접 참여하여 후배들에게 검술을 알려주고, 동작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지도하며, 부족한 부분을 직접 코치하여 선배와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예의를 중시하는 검술을 통해 정신을 수련하고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체력을 기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화검랑은 행림제에서 본국검범과 연격시범을 선보여 부드럽지만 강한 매력을 선보였으며, 매년 열리는 전국 의대생 검도대회에 참가하여 여자부 개인전 준우승과 단체전 우승 및 준우승 등의 우수한 성적을 거둬으로써 이화여대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대표 운동 동아리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 화검랑은 검도의 외적인 미와 더불어 학생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으며, 바쁘고 힘든 의대생활에 활력소가 되어주고 있다.

〈의예과 1학년 최은영 기자〉

학생수기

Medical Summer School 2017 Rostock에 다녀와서

〈의전원 4학년 광영지〉



학교 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2017년 6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독일

의 Rostock에서 진행되는 university of Rostock 주관의 Medical Summer school 2017에 참여하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본 Medical Summer school은 Rostock University와 연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Brown University Medical School, ETSU(East Tennessee State University) Quillen College of Medicine, 콜롬비아의 Pontifical Xavierian University Medical School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medical camp로, 이화여대 학생 한 명도 초대를 받아 다녀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medical summer school은 2주 동안 Aging 을 주제로 한 Rostock 의과대학의 임상의학, 기초의학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는 것이 주된 일정이었습니다. 각 임상의학, 기초의학의 분야별로 수업이 구성되었는데, 실습을 도는 의과대학의 커리큘럼과는 다르게, Aging이라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시선을 볼 수 있는 강의들이었기에 굉장히 신선한 접근 방법이었고,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외국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그 구조와 운영방식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어떤 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매일 강의 이후의 시간은 Rostock 지역의 명소를 방문하고, 지역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일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Warnemunde라는 곳에서 출발한 Boat trip이었는데, 북 독일에 위치한 Rostock의 노를 지는 Baltic sea를 감상할 수 있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주말 동안은 베를린으로 1박 2일의 여행을 다녀 왔는데 독일, 미국, 콜롬비아 학생들과 행복한 순간들을 함께하며 친분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의 의대생들과 함께 대화하며 교류하는 부분이 가장 뜻 깊었습니다. 학문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뿐 만 아니라, 학생들의 삶, 교육문화의 차이와 공통점을 인지하며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귀한 시간이었고, 같은 분야의 길을 걷어가는 동료를 넘어서, 삶의 좋은 친구를 얻은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학교와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후배님들도 Rostock summer school 혹은 그 외의 다양한 교류에 참여하여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특별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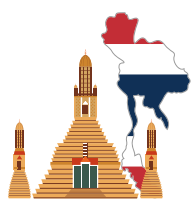
Graz의대 교환학생 환영식사



일정: 2017.07.26. 저녁6시
장소: 색동저고리
참석: 김승정 임상교무부장, 이진화 임상교무차장, 전루민 임상교무차장, Graz교환학생 2명(Eda Calisman,Eva Asamer), 실습학생4명

태국 마히돌의대 교환학생 환영식사

2017년 6월 13일 화요일, 태국 마히돌의대 교환학생 환영식사가 진행됐다. 최지하 교무차장, 김민석 기획차장, 해부학교실 신정아 교수, 생화학교실 박주원 교수 및 마히돌의대 교환학생 2명(Aspisara Charoenvareekul,



Lanlalit Terdsutatham)이 참석했다. 6월 5일부터 6월 23일까지 Lanlalit 학생은 해부학교실, Aspisara 학생은 생화학교실에서 실습을 진행하였으며, 이들은 마히돌의대와 MOU 체결 후 처음으로 기초의학실습을 진행한 교환학생이다. 내년에도 임상 및 기초의학실습 학생이 방문예정으로, 양교간의 교류협력이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교수소식



교원 인사 발령(2017. 8. 1. 자)

보직명	임 명	
	성 명	소 속
의무부총장	심봉석	비뇨기과학
의료원장		
의학전문대학원장	이지희	생리학
의과대학장		
임상치의학대학원장	김선종	치과학
목동병원장	정혜원	산부인과학
의과대학부학장(학생)	임원정	신경정신과학
의학전문대학원학생부원장		
의학교육학교실주임교수	권복규	의학교육학
피부학교실주임교수	최유원	피부과학
외과학교실주임교수	이령아	외과학
치과학교실주임교수	방은경	치과학
기획차장	심기남	내과학
학생차장	박준범	내과학
연구차장	문창모	내과학

이화의료원,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심봉석 교수 임명



제16대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심봉석 비뇨기과 교수가 임명됐다. 신임 심봉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배아장애, 전립선 질환 및 요로생식기감염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으며, 레이저 전립선 적출술, 비디오 전립선 절제술을 국내 최초로 시술했다. 연세대 의대를 졸업(1982년)한 심봉석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한양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했으며, 이대동대문병원 기획실장과 이대동대 문병원장을 역임하는 등 임상 능력과 함께 탁월한 경영관리 능력을 인정 받아왔다. 또한 대한비뇨기과학회 상임이사, 대한전립선학회 상임이사 및 고문,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회장, 아시아요로감염학회(AAUS) 실행위원 등 국내외 학회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수 수상 및 업적

내과학(알레르기) 조영주·김민혜 교수,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소소 우수논문상 수상



알레르기내과 조영주, 김민혜 교수팀이 최근 개최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소소 우수 논문을 수상했다. 조영주, 김민혜 교수팀은 '중증 급성 천식 악화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사망 위험 요인'이란 제목의 논문(저자: 조영주, 김민혜, 권성신)을 발표해 소소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이번 연구는 천식 악화로 입원 치료를 받은 천식 환자 사망의 위험 인자를 분석한 것으로 중증 천식 악화로 입원한 환자의 치료와 예후를 예측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조영주 교수와 김민혜 교수는 알레르기내과 전문의로 현재 환자 진료 뿐만 아니라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 연구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응급의학 한철 교수, KBS119상 공로 상 수상



응급의학과 한철 교수가 지난 4월 21일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개최된 '제22회 KBS119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국민안전처가 후원하고 한국방송공사(KBS)가 주최하는 제22회 KBS119상 시상식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강한 책임감과 희생정신으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재난사고 수습 등 헌신적인 소방 활동을 펼치며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119대원 및 기관, 단체를 표창하는 시상식이다. 한철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중앙구급교육협의회 위원으로 구급대원 교육 훈련과 강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119구조구급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한편, 고려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한철 교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고대안암병원과 고대안산병원 임상강사를 거쳐 현재는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성인응급센터 실장을 맡아 서울 서남권역 응급의료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비인후과학 정수연 교수,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예송학술상 수상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정수연 교수가 지난 4월 1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개최된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예송학술상을 수상했다. 정수연 교수는 국제 저명 학술지인 '바이오패브리케이션(Biofabrication)'에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폴리우레탄 지지체를 이용한 기도 부분 결손 재건(3D-printed polyurethane prosthesis for partial tracheal reconstruction)'을 주제로 한 논문을 게재, 그 가치를 인정받아 이번 학술상을 수상하게 됐다. 정수연 교수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기존 치료법으로는 수술도 복잡하고 입원 기간도 길었던 '부분 기관 결손'을 간단한 지지체를 이용해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연 교수는 음성질환 및 두경부, 갑상선 질환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왔으며,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국내외에서 연구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내과학(신장내과) 류동열·이신아 교수팀, 대한신장학회 KRCP 우수 논문상 수상



신장내과 류동열 교수-이신아 교수팀이 지난 5월 18일부터 21일 열린 제 37차 대한신장학회 학술대회(KSN 2017)에서 KRCP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류동열 교수팀은 '한국의 복막투석 환자에서 기술실패율과 기술실패와 연관된 위험인자(Technique failure in Korean incident peritoneal dialysis patients: a national population-based study)'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하여 말기신부전 환자의 투석 방법 선택과 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는 평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류동열 교수는 특정 유전자의 신장 특이 발현 제어 마우스 표현형 연구와 국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만성 골관절염·말기신부전 환자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2월부터 본교 연구처/산학협력단 의무산학부단장을 맡아 의과대학 교원들의 연구 수월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과 연구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소아과학 홍영미 교수팀, 대한소아과학회 우수포스터상 수상



소아청소년과 홍영미 교수, 홍부외과 김관창 교수팀은 지난 4월 21일 개최된 대한소아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홍영미 교수팀은 "칼로리 제한한 산모(어미쥐)에서 태어난 쥐에서 로잘탄 치료 후 내장 지방조직에서 마이크로레 이 분석"이란 제목의 연구를 발표해 대한소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는 태아프로그래밍된 고혈압 동물 모델 확립과 저체중 태아가 성인으로 성장하였을 때 고혈압의 초기 예측 마커를 개발하고 치료제로서 항고혈압약인 로잘탄 사용 후 유전자 변화를 보기 위한 연구로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홍영미 교수는 국내외 학회에서 폐동맥고혈압과 고혈압, 가와사키병 질환에 대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며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동창회 소식



2017.05.21 [봄 걷기대회]



장 소 : 정릉 숲길
참석자 : 이남희 회장 외 동창회원 96명 참석

2017.07.02 [제8회 골프대회]



장 소 : 수원 CC
참석자 : 동창회원 12팀 48명

행사알림

1. 이화 행림제

- 일정 : 10. 20 (금) 18:00 (예정)
- 장소 : 의학관 A동 1층 김옥길홀

동창 행사

1. 제10회 영닥터스포럼

- 일정 : 9. 2(토) 16:30
- 장소 : 프레지던트호텔 3층 슈벨트홀

2. 2017년 가을문화유적답사

- 일정 : 10. 15(일) 예정

(자세한 내용은 동창회 홈페이지 www.ewhamd.net 참고)

3. 2017년 송년회 및 학술심포지엄

- 일정 : 12. 2(토) 16:00
- 장소 : 신촌 이대 ECC관 B1 이삼봉홀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변성완(정보관리부장)

편집위원 김윤진(정보관리부 차장), 김범산(정보관리부 차장), 박주영

학생기자단 고혜진, 박조은, 방윤지, 최은영

디자인·인쇄 정디자인



※ 소식지에 게재할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mail: mediewha@ewha.ac.kr



2018년 완공예정인 마곡지구 새병원(좌) 및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우)